

##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이 동 규\*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br>의도 |
| II.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br>로기 전략     | V. 결론                        |
| III. 시진핑 이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br>로기 변화와 특징 |                              |

핵심주제어: 중국정치, 중국공산당, 시진핑,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 전략

### I. 서론

최근 몇 년 간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하는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핵심(核心)’이라는 용어가 시진핑의 호칭 앞에 붙기 시작하면서,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와는 달리 덩샤오핑(鄧

---

2019년 03월 15일 접수, 2019년 04월 19일 수정, 2019년 04월 25일 게재확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小平), 장쩌민(江澤民)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이하 시진핑 사상)’을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장(黨章)에 삽입하고, 2018년 3월 양회에서 헌법의 지도이념에 넣는 데에 성공하였다. 특히, 양회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임기제한이 폐지되고 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정치권력의 제도화,<sup>1)</sup> 놀라운 경제성과,<sup>2)</sup> 사회 안정<sup>3)</sup> 등 외적 성과를 근거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고려할 때, 상술한 지표들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서 시진핑의 정치권력 강화 움직임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비판과 대중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은 ‘격대지정(隔代指定)’이나 ‘칠상팔하(七上八下)’와 같은 관례를 파기하며, 중국공산당 내에서 제도화된 집단지도체제를 손상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경제는 10% 대의 성장률을 자랑하던 고속성장 시기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 단계, 소위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진입하였다. 즉, 경제구조개혁에 치중하는 질적 성장 시기에 진입하면서 과거에 보여주었던 양적 성장과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지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중국 사회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 
- 1) Minxin Pei(2013),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Adrew J. Nathan edit, *Will China Democratiz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pp.100-102, 또는 Jinghan Zeng(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pp.6-8.
  - 2) Tony Saich(2004),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p.347, Zhao Dingxin(2009),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pp.416-433.
  - 3) Bruce Dickson(2013),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pp.42-68.

되었던 성과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저항과 비난을 야기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도 시진핑이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주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양갑용은 시진핑이 중앙영도소조의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권력을 견고히 한다고 주장하였고,<sup>4)</sup> 여유경은 영도소조 및 중앙정치국 장악,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명문화 등 제도적 조정을 통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였다.<sup>5)</sup> 이에 비해서 필자는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sup>6)</sup> 전략의 관점에서 시진핑의 정치권력 강화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즉 이데올로기적 내용과 그 의도를 분석하여, 시진핑 사상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 그리고 중국 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2장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여 왔는가를 설명하고, 3장에서 시진핑 이전 중국공산당의 지도 이데올로기 내용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4장에서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분석하여 시진핑 사상이 가진 차별성과 이데올로기적 의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4) 양갑용(2014),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제60권,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pp.341-373.

5) 여유경(2018),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5권 제4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pp.171-198.

6) 본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신념체계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통치 수단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II.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톰슨(John B. Thompson)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① 통치 정당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②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나 통치 정당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창출하며, ③ 대중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회질서를 자연스럽게 수용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7)</sup> 특히,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통치 정당이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각 계층들이 국가 권력의 정당화를 승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8)</sup>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통치 집단에 대한 대중의 합의(consent)를 도출하는 데에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지도자 혹은 통치 정당은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중의 자발적인 합의를 확보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대중적 합의는 사회 내의 여러 갈등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통치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배 체제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정치 선동과 대중 교육을 이용하는 동원 방식(mobilization mode)을 사용해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sup>9)</sup>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 원인을 ① 민주화가 유발한 통치지도자들의 분열 ② 대중의 불만을 이용한 반대세력 ③ 서구 사상과 일당 독재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서 찾았다.<sup>10)</sup> 구소련을 반면교사

7) John B. Thompson(2013), *Ideology and Modern Culture*. Uitgever: Polity Press, p.56.

8) Heike Holbig(2009), Ideological reform and political legitimacy in China, *Regime legitimacy in contemporary China: Institutional change and stability*, Routledge, pp.15-20.

9) Xiaobo Su(2011),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 no. 69, p.312.

10) Jinghan Zeng(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pp.6-8.

로 삼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장경제를 수용한 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의 분열을 막고, 대중의 불만을 억제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행해진 중국 문화에 대한 파괴 행위는 민족적 정체성의 상실을,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주의노선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초기 빠르게 유입되는 서구 사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의 부재와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신념의 위기 때문에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sup>11)</sup>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역설적으로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략은 마오쩌둥 시기에 시행되었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맹목적인 정치 선동과 급진노선이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고, 이런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신념에서 대중을 교육하고 대중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수단으로 전략하였다.<sup>12)</sup>

그래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개혁개방 이후 오히려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이후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는 1979년 중국 문학예술종사자 제 4차 대표대회 축사(在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四次代表大會上的祝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예예술 종사자들은 교육종사자, 이론종사자, 신문종사자, 정치종사자와 기타 관련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4개 현대화 사상의

11) Cao Qing(2007),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9: no.5, p.434.

12) 安祥仁(2015). 『中国共产党意识形态理论的当代历史发展』.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95-96.

진행을 방해하는 각종 세력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유효한 투쟁을 해야 한다. …… 착취계급 사상을 비판하고, 무정부주의를 비판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sup>13)</sup>

또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좌와 우를 논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여, 안정된 단결 국면을 파괴하고, 절대다수의 이익과 뜻을 배척하는 것이다. …… 문예 창작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기타 업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 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인민을 깨우치고, 이런 추세에 위태성을 알게 해야 한다.”<sup>14)</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덩샤오핑은 이데올로기를 당시 추진하고 있던 4개 현대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정치 부문이나 당 내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예, 교육, 이론, 신문, 정치공작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에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대중을 교육하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은 중국 대중에게 강력한 이데올로기 전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정치사상교육과 정치선전(propaganda)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당 내 여러 신문과 저널, 특히 인민일보와 당교 기관지인 구시(求是)를 통해서 당원들과 정부 기관, 국유기업 직원들, 대학생들에게 중국공산당의 지도 사상과 이론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애국주의 교육 중심이었던 정치사상교육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 국사, 당

13) 中国中央文献研究室编(1998). 『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 第十九册』. 中央文献出版社. p.508.

14) 中国中央文献研究室编(1982).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上). 中央文献出版社. p.348.

사, 애국주의, 집체주의 등으로 세분화하여 강화하여 왔다.<sup>15)</sup> 시진핑 시기에도 “경제건설이 당의 중심 업무이지만, 이데올로기는 더 중요한 당의 중요 업무”라고<sup>16)</sup> 강조하며,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대하는 정치선전과 사상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행하고 있다.<sup>17)</sup> 예를 들어, 2012년 공표된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值觀)”을 고등학교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암기하게 하거나, 2013년 이래로 “시진핑 치국이정을 말하다(習進平談治國理政)”, “시진핑 개혁전면심화를 논하다(習進平闡與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시진핑 총서기 중요 강화독본(習進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등의 시진핑 어록을 출판하고 전국적으로 시진핑 어록 학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sup>18)</sup>

둘째,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언론매체 뿐 아니라, SNS, 인터넷 등 신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7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국가안전법보다 국가 안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은 사이버방어능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외에도 인터넷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19)</sup> 이외에도 시진핑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학습중국(學習中國) 앱을 개발하거나,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통해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정당성 확보 전략에 대한 중국 지식인 여론조사에서 정치선전 강화(38%)가

15) 陳錫敏(2017), 思想政治理論課大學生國家認同, 『教學與研究』, 2期, p.88.

16) 習進平(2016), 把宣傳思想工作做得更好, 『習進平談治國理政』, 外文出版社, p.153.

17) Zhao Suisheng(2016), The Ideological Campaign in Xi's China, *Asian Survey*, November-December 2016, Vol.56(6), pp.1168-1170.

18) 덩샤오핑 문집은 1994년에, 장쩌민 문집은 2006년에, 후진타오 문집은 2013년에 출판되었다. 이처럼 지도자의 어록이 그동안 지도자의 퇴임 후 출판된 것을 생각하면 시진핑 집권 시기에 시진핑 어록이 출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 문지영·강준영(2018), 중국 시진핑 시대 언론통제 연구,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p.292.

관료주의 개선(46%)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이 공산당에 우호적인 대중의 합의를 만드는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 Ⅲ. 시진핑 이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특징

상술하였듯이,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통치수단의 하나로 이데올로기 전략을 새롭게 강화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의 합의를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까지 중국공산당이 표방하였던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시진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각 지도자의 주요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그 합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덩샤오핑 시기: 개혁개방 후 당의 균열과 덩샤오핑 이론

개혁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덩샤오핑 이론이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때문에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은 당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갈등을 초래하며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였다.<sup>21)</sup> 설상가

---

20) Gilley, B and Holbig, H.(2009), The Debate on Party Legitimacy in China: A Mixed Quantitative/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8(59), pp.339-358.  
Jinghan Zeng(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pp.104-105에서 재인용.

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 동유럽권의 붕괴, 그리고 냉전의 종식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는 개혁개방 정책이 정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야기하였고, 1989년 천안문 사건은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불안감을 가증시켰다.<sup>22)</sup>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 수용과 공산당의 정체성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초래된 당내 균열과 대립을 해소하여 당의 응집을 강화해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 이론은 공산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내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공산당원들에게 익숙한 사회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중국의 특수상황을 내세워 시장경제의 수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2. 장쩌민 시기: 삼개대표론과 보완 이데올로기의 부상

덩샤오핑 이론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닦았지만,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회복 및 발전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사영기업주 등 다양한 계급이 등장하였고, 당-국가와 사회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23)</sup>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타파해야할 대상인 자본주의 계급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딜레마 하에서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은 중국 선진 생산력, 중국 선진 문화, 그리고 중국 최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삼개대표론을 제시하며, 중국공산당의

21) 이동규(2017),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중국학논총」, 제5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189.

22) 니시무라 시게오·고쿠분 료세이(2012), 『중국의 당과 국가』, 한울아카데미, pp.246-248.

23) Cho Hee-yeon(2014), Is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ossibl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flection of crisis in the Chinese party-state regime and post-revolutionary socialist hegemonic politics,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15: No.1, pp.129-130.

정체성을 혁명당에서 엘리트 집권당이자,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전환하였다.

특히, WTO 가입을 앞둔 2001년 7월에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성립 80주년 대회에서 “전국 인민의 민족 자존심, 자신감을 증대시켜 중화부흥을 위해서 부단히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화민족주의를 하나의 보완 이데올로기<sup>24)</sup>로 설정하고, 대중적 합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sup>25)</sup> 즉, 국내적으로 사영기업주 등 다양한 계층이 등장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서구 국가들과의 교류가 심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제창해왔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들에게 공허한 외침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대중의 응집과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 3. 후진타오 시기: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은 경제노선 추진에 초점을 맞춘 덩샤오핑 이론이나 당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둔 삼개대표론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시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부작용들, 즉 부의 분배 문제, 사회 부조리 문제, 계층 간의 갈등, 환경 문제 등의 문제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의

24) 징한정(Jinghan Zeng)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도 이데올로기(공식 이데올로기)와 보완 이데올로기(비공식 이데올로기)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분석하였다. 지도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삼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과 같은 지도사상으로 당원을 대상으로 중국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면, 보완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특수상황, 민족의 부흥, 애국주의, 전통문화 등과 같은 요소에 기반을 둔 대중친화적 언어로서 공식 이데올로기를 보완하여 권위주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inghan Zeng(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pp.23-26 참고.

25) 전성홍 편(2006),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에버리치홀딩스, pp.167-204.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중국공산당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선전에 전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며 이데올로기의 전파력을 제고하였다는 것이다.<sup>26)</sup>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은 화이부동(和而不同) 개념에 기초한 조화사회(Harmonious Society, 和諧社會)라는 정치슬로건이다. 후진타오는 1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서 조화사회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사명 중의 하나임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마오쩌둥의 계급투쟁론 대신에 사회 안정을 해치던 계층 간·민족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기하였다.<sup>27)</sup>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도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체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중국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하여 지도사상, 공통의 이상, 신념, 도덕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후, 중국공산당은 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공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sup>28)</sup> 또한, 서구의 민주사상에 대응하여 민본사상(民本思想)이라는 중국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거나 천명(天命) 사상을 기반으로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선전하기도 하였다.<sup>29)</sup> 과학적 발전관이나 조화사회와 같은 개념을 볼 때,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적 용어나 개념의 사용을 자제하고, 오히려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선전함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장쩌민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집권당으로서 대중에 대한 통치력을 확대하

26) 劉東超(2011), 儒學與我國主流意識形態的建設,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1期, p.59.

27) 王元(2015), 對接、超越與融合: 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三重意蘊, 「教學與研究」, 第7期, p.55.

28)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12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겸업(兼業), 성신(誠信), 우선(友善)이다.

29) Cong Xiaoping(2013), Road to Revival: a new move in the making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party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 no. 83, p.905.

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시기까지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주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정치선전을 강화하여 왔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시장경제 수용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 즉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문제, 당의 분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내 여러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후(事後) 처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작용에 대한 반응으로서 수동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중화민족이나 전통문화 등을 강조하는 보완적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IV.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의도

##### 1.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미래지향적 중화민족주의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를 통하여 시진핑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발표하였다.<sup>30)</sup> 보고에서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섰다”고 선포하며, 이것은 “중화민족이 일어서고(站起來) 부유해진 것(富起來)을 넘어 강해지는(強起來) 위대한 도약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마오쩌둥 시기 신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수

30) 본 장에서는 이데올로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진핑 사상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진핑 사상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시진핑 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치영(2018),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원, pp.144-185, 혹은 김진호(2018), 시진핑 집권 2기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57-88을 참고하기 바람.

립되고 덩샤오핑 시기 개혁개방을 거치며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집권 1기에 언급하였던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과 ‘중국의 꿈(中國夢)’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미래(美麗)한 사회주의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지도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은 보고에서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와 ‘인류운명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세계질서나 규칙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시진핑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을 하나로 연결하고 추진하는 ‘오위일체(五位一體)’의 구도 속에서 샤오강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존엄치당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사개전면(四個全面)’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였다.<sup>31)</sup>

이러한 시진핑 사상은 중화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중국 대중의 힘을 응집시켜 경제구조개혁, 사회 안정 등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치력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쩌민 시기부터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후 발생한 경제성장의 부작용,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있어서 중화민족주의를 하나의 보완적 이데올로기로 정치선전에 사용하며 대중의 동요를 억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의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주의를 이용해 왔던 기존의 이데올로기 전략의 확장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사후 처리식이고 수동적인 것이 비해서, 시진핑 사상에 나타난 중화민족주의는 경제대국을 넘

31) [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 (2017-11-02 검색)

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국가로서의 미래 비전을 내포하여 중국 대중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사상은 미래지향적 중화민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시진핑 사상의 의도와 이데올로기적 함의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에 비춰볼 때, 시진핑 사상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것인가? 또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2장에서 보았듯이, 이데올로기는 통치 정당에게 유리한 사회질서를 창출하고 대중들이 그러한 사회질서를 수용하여 통치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국 내에서 각 지도자의 지도 이데올로기는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 이념적 권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sup>32)</sup> 지도자와 중국공산당에게 우호적인 대중 인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진핑에게 최고의 이념적 권위를 부여하여 그의 정치적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이나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과는 달리 시진핑 사상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같이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집권 후가 아닌 집권 중에 당장과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것은 시진핑을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나 개혁개방으로 중국 번영의 길을 연 덩샤오핑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는 시도이고, 이런 점에서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 이름이 포함된 사상이 당장과 헌법에 명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진핑에게 매우 큰 정치적 권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전체 대중에게 지대한 효력을 미치는 당장과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시진핑의 통치이념과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32) 조영남(2017),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26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5.

시진핑 개인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통치이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활동을 제한하며 시진핑 자신의 정치권력을 견고히 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미래 비전을 일체화하여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진핑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1921년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후, 중화민족이 민족 독립과 국가부강을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중국공산당이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33)</sup> 중국공산당의 영도가 없이는 중화민족의 부흥도 없으며,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중국의 꿈, 나의 꿈(中國夢, 我的夢)’이나 ‘중국이 왜 강해졌는가, 공산당 때문이다(中國何以強, 緣與共產黨)’와 같은 정치슬로건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공산당만이 중국을 강대하게 할 수 있고, 공산당이 아니면 중국은 강대국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해지고 자신의 삶이 더 풍족해지기를 원한다면 공산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중국과 서구를 차별화하여 중국정치변동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 대중이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자유, 민주와 같은 서구 사상이 중국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서구 사상과 그에 기초한 정치변동 요구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은 당교 기관지인 구사에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그릇된 사조(錯誤思潮)’가 들어왔고, 이것이 중국의 단결과 투쟁의 기반을 흔들 것으로 주장하였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3) [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 (2017-11-2 검색)

34) 그릇된 사조란 ①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서구의 보편가치 ② 현정민주 ③ 역사 허무주의 ④ 신자유주의 ⑤ 개혁개방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의심을 의미한다. 문지영, 강준영(2018), 중국 시진핑 시대 언론통제 연구,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서 중국공산당은 서구 사상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하며, 그 하나의 방편으로 서구 가치를 보편적 가치가 아닌 서구만의 특수한 가치로 인식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시진핑은 2018년 전인대 연설에서 인민이 역사의 창조자임을 강조하면서 56개의 민족으로 이뤄진 중화민족이 극악무도한 침략자(窮凶極惡的侵略者)인 서구 열강을 패배시켰음을 강조하였다.<sup>35)</sup> 여기에서 그는 19세기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야기된 ‘백년 국치(百年國恥)’를 언급함으로써 대중에게 과거 서구 열강의 침략과 수탈로 인한 역사적 수치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술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중국공산당만이 이러한 수치의 역사를 끝내고 중국의 자주독립과 경제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서구를 분리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즉, 중국 대중들에게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했던 제국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런 서구 국가의 가치는 결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서구 사상과 정치체제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변동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중국 상황에 적합하고 옳은 방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하는 중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중국 대중의 소속감과 단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진핑은 외교 부문에서 신행국제관계, 인류문명공동체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한 의도가 실현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러한 시도는 그 수사적 표현만으로 중국 대중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중국 특색의 대외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광

---

 pp.285-286.

 35)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2018-4-3 검색)

양희(韜光養晦)에서 분발유위(奮發有爲)로 외교전략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하여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남중국해나 동북아지역에서 주변국들이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중국 대중들에게 자부심과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사실,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까지만 해도 평화발전을 제창하며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경제성장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중국 대중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양안관계에서의 미국의 간섭,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2000년 올림픽 개최 실패, 2008년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 2012년 센카쿠/다위다오 상륙 사건 등은 서구 열강들과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견제하는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매 사건마다 중국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이것이 민족주의적 감정과 맞물려 대대적 시위로 이어졌다. 이런 중국인의 감정을 고려할 때, 시진핑 사상에 나타난, 국제사회에서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중국의 위상은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여 중국인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제고할 뿐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진핑과 공산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시진핑 사상 또한 장쩌민 시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구와는 다른 중국만의 독특함을 강조하며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도하고 정치변동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에 비하여, 시진핑 사상은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사상은 서구와 중국을 구별하여 서구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미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적으로

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고 중국 대중의 단결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중국 대중에게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심어주며 단결을 유도하고, 중국 국내정치에 안정화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 외의 국가들, 특히 서구식의 정치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결국, 시진핑 사상은 민족의 단결을 추구하고 중국 특색의 가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적 요소를 활용하며 서구 사회에 대한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중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중국 국내를 넘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이제까지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신념은 대중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당의 응집과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내외 상황 변화와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에 따라 지도 이데올로기를 변형 및 발전시키고, 민족주의와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보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사상교육, 정치선전, 언론매체 통제 등의 방식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전략을 시행하며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대중 인식과 사회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략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변동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과 저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며 중국공산당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을 볼 때, 경제성장, 사회 안정 등 중국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던 국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몇 가지의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넣은 지도 이데올로기를 당장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시진핑 자신에게 이념적 권위를 부여하였고,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미래 비전을 일치시키며 중국공산당의 통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중국과 서구를 구별하여 서구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의 정치변동 요구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단결과 일체감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사상은 중국 대중들이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외적인 배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진핑 사상은 경제성과나 사회 안정과 같은 외부 지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직면할 수 있는 당 내 비판과 대중의 저항을 상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향후 미중대립이나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만족할 만한 외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서구 사상이 지속적으로 중국 내로 유입되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략이 그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진호(2018), 시진핑 집권 2기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니시무라 시게오·고쿠분 료세이(2012), 『중국의 당과 국가』, 한울아카데미.
- 문지영·강준영(2018), 중국 시진핑 시대 언론통제 연구,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 안치영(2018),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원.
- 양갑용(2014),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제 60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여유경(2018),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5권 제4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이동규(2017),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중국학논총」, 제5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 이문기(2018),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 가능성과 중국 정체체제 전망, 「중국 부상의 전환기적 도전」, 현대중국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현대중국학회.
- 전성홍 편(2006),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에버리치홀딩스.
- 조영남(2017),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 26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Bruce Dickson(2013),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 Cao Qing(2007),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9:no. 5.
- Cho Hee-yeon(2014), Is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ossibl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flection of crisis in the Chinese party-state regime and post-revolutionary socialist hegemonic politics,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15: No.1.
- Cong Xiaoping(2013), Road to Revival: a new move in the making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party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 no. 83.

- Gilley, B and Holbig, H.(2009), The Debate on Party Legitimacy in China: A Mixed Quantitative/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8(59).
- Heike Holbig(2009), Ideological reform and political legitimacy in China, *Regime legitimacy in contemporary China: Institutional change and stability*, Routledge.
- Jinghan Zeng(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John B. Thompson(2013), *Ideology and Modern Culture* Uitgever: Polity Press.
- Minxin Pei(2013),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Adrew J. Nathan edit, *Will China Democratiz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Tony Saich(2004),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 Xiaobo Su(2011),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 no. 69.
- Zhao Dingxin(2009),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 Zhao Suisheng(2016), The Ideological Campaign in Xi's China, *Asian Survey*, November-December 2016, Vol.56(6).
- 安祥仁(2015), 『中国共产党意识形态理论的当代历史发展』,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陳錫敏(2017), 思想政治理論課與大學生國家認同, 「教學與研究」, 2期.
- 劉東超(2011), 儒學與我國主流意識形態的建設,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1期.
- 王元(2015), 對接、超越與融合: 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三重意蘊, 「教學與研究」, 第7期.
- 習進平(2016), 把宣傳思想工作做得更好, 『習進平談治國理政』, 外文出版社.
- 中国中央文献研究室编(1982), 『三中全会以来重要文献选编』(上), 中央文献出版社.
- \_\_\_\_\_ (1998), 『建国以来重要文献选编 第十九册』, 中央文献出版社.
- [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 (2017-11-2 검색)
-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2018-4-3 검색)

국문초록

##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이 동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을 분석하고 그 의도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의 응집과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의 제도화와 사회 안정 등 외적 성과와 함께 중국공산당에게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진핑 사상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진핑에게 이념적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견고히 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미래 비전을 일치시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중국과 서구를 구별하여 서구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서구식 민주주의로의 정치변동 요구를 억제한다. 넷째,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부각하여 중국인들의 단결과 일체감을 도모한다. 이러한 시진핑 사상은 경제성 과나 사회 안정과 같은 외부 지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직면 할 수 있는 당 내 비판과 대중의 저항을 상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시진 핑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중국정치, 중국공산당, 시진핑,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 전략

Abstract

## The Xi Jinping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ical Strategy

Dong-Gyu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Xi Jinping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s ideological strategy and reason out its intentions and ideological implications. Since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has utilized ideologies as political means, and the CCP's ideological strategy has played a great role in according legitimacy to the CCP with great economic performance, it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tability of Chinese society. In that sense, the Xi Jinping Thought also has several ideological implications. First, it solidifies Xi Jinping's political power by providing a great ideological authority. Second, it helps the CCP secure legitimacy by reconciling the CCP's ruling and China's bright future. Third, it contains the demand for political change to Western democracy by stressing Chines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ng China and the West. Fourth, it induces the Chinese's unity by suggesting China as a great pow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ological strategy, the Xi Jinping Thought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consolidating Xi's political power with the intention to offset the public's resistance against the CCP.

**Key words:** Chinese Politics, Chinese Communist Party, Xi Jinping, Xi Jinping Thought, Ideological Strategy